

9일 Market Index			
↑ 코스피	2855.77	↑ 코스닥	764.21
	(+43.72)		(+7.98)
↓ 금리 (국고채 9년)	2.405	↓ 환율 (원·달러)	1353.55
	(-0.007)		(-4.85)



“5년 뒤를 준비하라”... 인니서 배터리·가전 경쟁력 점검

〈인도네시아〉

LG구광모, 글로벌 경영

LG·현대차 합작공장 방문
포스트 캐즘 대비 전략속도
R&D·유통 등 전방위 시찰
동남아 거점 중장기 승부수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인도네시아를 찾아 배터리사업 육성 의지를 강조하는 한편 인구와 자원이 풍부한 신흥시장에서 미래 성장 기회를 모색했다. 지난 2월 인도에 이어 세계 4위 인구 대국인 인도네시아를 잇따라 방문하며 중장기 성장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

9일 LG그룹에 따르면, 구 회장은 이날 초 인도네시아 카라왕 신산업단지에 있는 전기차 배터리셀 합작공장 ‘HLI그린파워’를 찾아 생산라인을 점검했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국면을 넘어설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전기차 시장의 다음 성장 단계를 대비하는 행보로 해석된다.

HLI그린파워는 LG에너지솔루션과 현대자동차그룹이 공동 설립한 인도네시아 첫 배터리셀 합작공장이다. 연간 10기가와트시(GWh) 규모의 배터리셀을 생산할 수 있으며, 이는 전기차 약 15만 대에 탑재할 수 있는 물량



광화문 글판 ‘여름편’ 게시

9일 서울 광화문 교보생명 외벽에 이재무 시인의 ‘나는 여름이 좋다’에서 발췌한 광화문 글판 여름편이 걸려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이다. 이 공장은 지난해 4월 양산을 시작한 이후 4개월 만에 수출 96%를 넘기며 안정화에 성공했다.

구 회장은 전국, 조립, 활성화 등 핵심 공정을 둘러본 뒤 “LG만의 차별화된 배터리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G 관계자는 “전기차 캐즘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고 중국 업체와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철저하게 포스트 캐즘을 준비하겠다는 구 회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 회장은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배

터리를 국가 핵심 산업이자 그룹의 주력 사업으로 반드시 키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배터리 공장 점검 후 구 회장은 자카르타 인근 짜비퐁의 LG 전자 생산·연구개발(R&D)법인과 현지 유통 매장을 방문해 생산부터 연구·판매까지 밸류체인 전반의 경쟁력을 살폈다.

짜비퐁 공장에선 TV와 모니터를, 땅그랑 공장에선 냉장고·에어컨을 생산한다. 2023년 짜비퐁 인근에 신설된 R&D법인은 동남아 시장 공략의 전초기지로, 2025년까지 연구 인력을 5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구 회장은 자동화된 TV 생산라인과 R&D 인력 확충 계획을 확인하며 동남아 전략을 논의했다. 또 전자제품 전문 유통 매장 ‘일렉트릭 시티’도 방문해 LG 제품의 판매 현황과 고객 반응을 살폈다. 동시에 중국 업체들의 시장 공략 현황도 면밀히 점검했다.

구 회장은 이 자리에서 “지금 치열한 경쟁에 대응하는 것 못지않게, 5년 뒤를 위한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혜민 기자 hyem@metroseoul.co.kr

社告



메트로경제 ‘2025 푸디노베이션 포럼’

AI가 만드는 ‘음식의 미래’

메트로경제는 창간 23주년을 맞아 ‘맛의 알고리즘, AI가 만드는 음식의 미래’라는 주제로 오는 6월 25일(수)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2025 푸디노베이션 포럼’을 개최합니다.

이제 ‘맛’이라는 감각조차 알고리즘이 설계하는 시대입니다. 음식은 단순한 조리의 결과물을 넘어서 데이터와 기술이 결합한 하나의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생산에서 조리, 소비에 이르기까지 인공지능과 자동화기술이 더해지면서, ‘맛의 미래’는 기술의 언어로 새롭게 써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AI와 자동화, 스마트팜 기술이 어떻게 음식의 세계를 재구성하고 있는지를 조망하는 푸디노베이션 포럼을 준비합니다. 이 포럼은 기술과 미각이 교차하는 최전선의 현장을 소개하고, 식품산업의 다음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기술의 흐름이 우리의 식문화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리고 사람과 기술의 새로운 관계가 어떤 ‘맛’을 만들어낼지를 묻는 여러 강연이 중심이 될 예정입니다. 또 푸드테크와 관련해 국내외 식품·외식·AI·로봇 관련 스타트업들이 모여 푸드테크 산업의 현재와 과제를 짚어보고 동반성장 기회를 모색할 계획입니다.

- ◆ 주 제 : 맛의 알고리즘, AI가 디자인하는 음식의 미래
- ◆ 일 시 : 2025년 6월 25일(수) 14:00~17:00
- ◆ 장 소 :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3F)
- ◆ 주 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 문 의 : 2024 푸디노베이션포럼 사무국 (02)721-9818
- ◆ 참 가 비 : 사전 등록시 무료(100명 선착순, 현장등록 1만 원)
- ◆ 이 메 일 : forum@metroseoul.co.kr



李 “경기회복 위해 속도감 있게 추경 편성하라”

2차 비상경제TF 회의 물가점검·추경방안 등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국민들이 물가 문제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관계 부처에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2차 비상경제점검TF(태스크포스)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물가 문제를 점검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민생경제 회복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2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경기 회복·소비 진작 차원에서 속도감 있는 추경 편성 ▲취약 계층·소상공인 등 지원 우선 ▲추경 핵심사업 발굴, 추진 시 확실한 효과 나오도록 검토·협업할 것 등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을 우선하라”

며 “추경 핵심 사업을 잘 발굴하고, 추경 추진 시 확실히 효과가 나올 수 있게 검토하고 협업을 해 나가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거쳐 조만간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전망이다. 박찬대 민주당 대

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차원의 물가 관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당정협의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당정협의 일정 등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들에게 “라면이나 필수 먹거리인 계란 가격이 4년만에 최고인데,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이 있다고 (이대통령이) 모두발언에서 말씀한 것”이라며 “(물가) 부분에 있어서도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서예진 기자 syj@

美 관세 유예 ‘짜깁깁’ G7회의, 새 변곡점 될까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설정한 90일간의 유예는 7월 9일(미동부시간) 0시부터 종료된다. 이달 중순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각국 협상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지 관심을 모은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 자리에 초청받아 참석할 예정이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국과의 빠른 타결을 공언했었다. 하지만 9일 기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최종 타결에 이른 곳은 영국뿐이다. 우리의 경우도 이제 막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

로 전해졌다.

일본은 미국과 5차 협상까지 갔으나 입장 차가 여전해 타결이 난망한 상황이다. 인도는 주요국 중 가장 빠른 타결이 가능하다는 관측이 지난 4월 하순 나온 바 있으나 아직 협상 중이다. 유럽연합(EU), 중국과의 진도는 결음마 수준이다.

이같이 속도가 붙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이 향후 30일 내 주요국과 협정을 맺는 게 가능하냐는 회의론이 불거지고 있다.

유예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일 각국에 최상의 안을 달라며 서한을 보냈다. (3면에 계속)

/세종=김연세 기자 kys@

메트로 한줄뉴스



통일부

▲군 “대북방송 중단 여부, 정부 차원 안보 고려 종합적 검토 필요”
▲통일부 “대북전단 살포금지 강력 요청”... 입장 선회
/사진 뉴시스

▲민주 “물가안정 TF 구성... 현 정부 추경은 ‘퍼주기’ 아니야”
▲홍준표 “개혁신당행 낭설”... 국힘엔 “내란동조당 되면 해산”

▲輿 원내대표 경선 ‘김병기·서영교’ 2파전... 권리당원 표심은
▲국힘, 전당대회 시기 두고 ‘갑론을박’... 새 지도체제도 의견 엇갈리스